

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감정과 기억: GPT 활용 증언 분석

나영은

연구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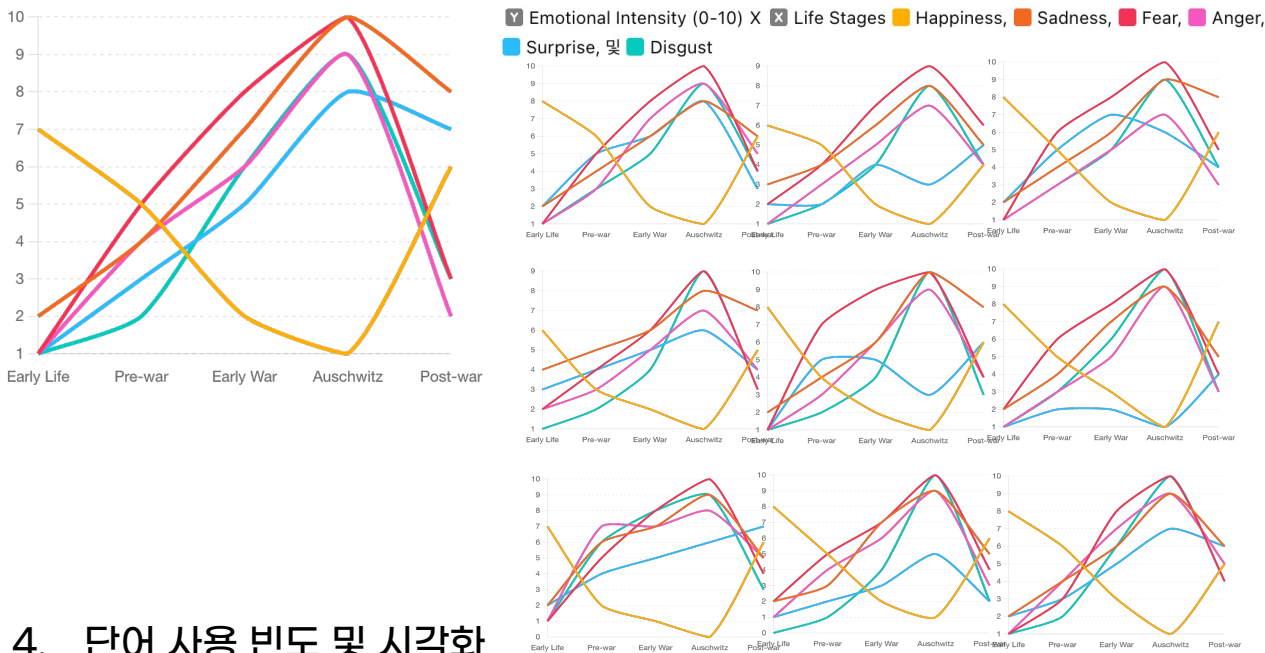
-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증언은 역사적, 인문학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기록이다. 역사 전공 인공지능인문학 학부 연구생으로서 증언 데이터를 GPT를 활용하여 분석하여 감정 변화와 주요 경험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목표이다.

본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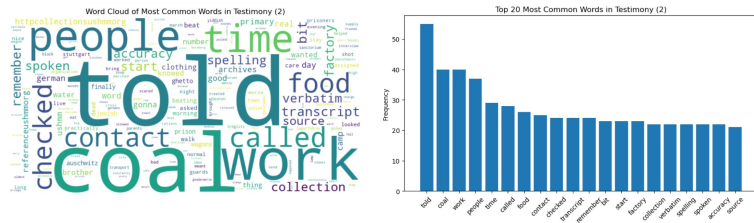
- 활용 데이터: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 제공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존자 10인 증언 인터뷰 텍스트
- 공통 테마 분석

Forced labor
Liberation
Separation from family
Starvation
Camp life
Deporta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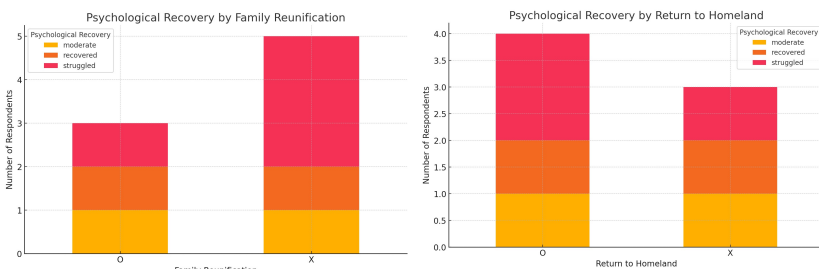
- 폴 에크만의 감정 이론 기반 감정 변화 추이 분석
: 폴 에크만의 6가지 기본 감정(행복, 슬픔, 두려움, 분노, 놀라움, 혐오)을 기반으로, 삶을 5단계(어린 시절, 전쟁 전, 전쟁 초기, 아우슈비츠, 전후)로 나누어 주요 감정을 파악하고 감정의 강도를 분석한다.



- 단어 사용 빈도 및 시각화
: 생존자 10인이 인터뷰에서 사용한 단어들의 빈도를 계산하여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해 시각화 한다. (아래는 그 중 Morris Kornberg의 단어 사용 빈도)



- 해방 후 심리적 회복 분석
: 해방 당시 생존자의 나이, 성별, 해방 후 정착지, 고향 복귀, 가족과 재회 등 여러 변수들이 해방 후 심리적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. 고향 복귀와 심리적 회복, 가족 재결합과 심리적 회복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시각화한 결과이다.



결론

- 감정 변화의 패턴: 10인 모두 비슷한 감정 추이를 보인다. 슬픔과 두려움이 아우슈비츠 시기에 특히 두드러졌으며, 해방 이후에도 그런 경향을 보인다.
- 한계: 작은 샘플 크기, 데이터의 불완전성, 사건 전개 중심의 서술로 인해 단어 사용 빈도 분석과 해방 후 심리적 회복 분석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. 이를 보완해 연구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